전남·광주 통합특별시, 7월 출범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824건 통합, 512건 새로 제정 등
주민 생활 밀접 행정서비스 포함

왼쪽부터 광주시청,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와 광주시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 자치법규안(조례·규칙·훈령·예규)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13일부터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자치법규안을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하고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중단 없이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입법예고 대상은 출범일에 맞춰 우선 정비해야 할 자치법규다.

시·도는 앞선 6일 통합 자치법규안 합동심의를 열고 현행 자치법규 2453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위임조례 제정 사항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출범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폐지·단계적 정비 대상으로 구분했다.

시·도는 합동심의 뒤 현행 자치법규 중 824건을 통합했다. 이중 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512건(824건 중 중복 등 통합)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법규는 특별시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통합 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행정 운영의 기본 틀이 될 자치법규와 주민 생활에 밀접한 대민 행정서비스 관련 자치법규가 포함됐다. 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금고 운영, 민원 처리, 제증명 수수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도는 광주와 전남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법규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춰 정비한다. 미래산업,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관련 자치법규와 함께 규제자유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등 특별법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안도 마련한다.

폐지 대상은 통합 자치법규로 대체할 수 있거나 상위법령·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농민공익수당·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통합 이후 기준 조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지원 기준과 재정 부담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새로운 통합 조례·규칙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 등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자치법규를 해당 지역에 한정해 계속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도 별도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기준과 절차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통합특별시의회 사전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곧바로 추진한다.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행정의 기초인 조직개편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 채 출범한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조직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은옥 광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단순한 조례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근간을 세우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경북도, 정부합동평가 역대최고 성과

정량지표 달성률 98.9%
현장 밀착형 정책 '효과'

경북도가 정부합동평가와 중앙부처 평가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현장 중심 행정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2일 도청 원융실에서 '정부합동평가 및 개별 중앙부처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성과와 올해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정량지표 달성률 98.9%를 기록했다. 전체 96개 지표 가운데 95개를 달성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산불 대응체계 정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강화 등 현장 밀착형 정책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도는 올해 정부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3위권 진입을 목표로 32개 중점관리 지표를 집중 관리하고 시군 협업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개별 중앙부처 평가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는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고,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

이 밖에도 환경관리실태와 농촌진흥사업, 식중독 예방관리 등 여러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거뒀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행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포항AI데이터센터.

포항AI데이터센터, 내년 첫 상업운전

5500억 투입… 40MW 규모 구축

경북 포항의 AI데이터센터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금융조달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착공된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시 광명일반산단에 5500억원을 들여 40MW 규모로 구축되는 이 시설은 최근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투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다음달 착공해 내년 10월에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의 다른 상업 AI데이터센터 사업보다 2~3년 빠른 추진 속도다.

이 센터의 전력사용효율(PUE)은 평균 1.25로 최상위권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PUE는 시설이 사용하는 전력량을 IT장비가 사용하는 전력량으로 나눈값으로 1.0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높다. 전 세계 일반 데이터센터의 평균 PUE는 1.56 수준이다.

이 센터는 또 입지가 비수도권인데다 단층구조 설계로 초기 설비투자비도 크게 줄였다. /포항=김진곤 기자 jingon@

대구 4월 취업자 전년비 2000명 증가

고용률 58.4%… 전년과 동일

대구의 4월 취업자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가운데 실업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4월 대구광역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취업자는 12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0.2%) 증가했다.

고용률은 58.4%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8%로 0.2%포인트(p)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3만4000명, 농림어업은 2000명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1만3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1만2000명, 건설업은 8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2000명 감소했다.

지난 3월 31일 열린 '2026 대구·경북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8000명 감소했고 비임금근로자는 1만명 증가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영남이공대, 'AID 전환 전문대학' 선정

〈AI+디지털〉

AI 실무인재 양성 본격화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대학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영남이공대학교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기반 직업교육 혁신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학은 'AI-Native 실무역량으로 지역 산업을 혁신하는 X+AI 직업교육 선도대학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전공 분야별 AI 현장실무역량을 갖춘 전문기술인재 양성과 전문대학 중심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교육 혁신 모델로는 'YNC형 지역산업(D6)+AI 실무인재양성 체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 중심의 AI·DX 교육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디지털 실무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업은 AI·DX 교육 운영 기반 구축, 산학일체형 X+AI 교육 확대, 전 학과 AI 역량 강화, 교수학습 혁신, 지역사회 AI 평생학습 거점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구=김강석 기자

지역 이모저모

영양군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 오픈

영양군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선보인다.

영양군은 주민과 전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인구정책 통합 홈페이지 '영양살이'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지원 혜택을 찾기 위해 여러 부서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영양살이'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사업카드' 시스템을 도입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진주시

'긴급차량 우선 신호' 가동

경남 진주시는 최근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급증한 가좌동 신진주 역세권 지역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진행 방향의 신호를 녹색등으로 우선 제어하는 첨단 교통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교통 정체가 심한 6개 구간에 구축해 운영 중이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거제시

"거제서 한달살기 어때요?"

경남 거제시가 거제에서 한 달간 머물며 지역 관광자원과 일상을 경험하는 '2026 거제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12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하는 이번 사업은 참가자들이 일정 기간 거제에 머물며 지역의 관광·문화·먹거리·로컬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SNS·블로그·영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지원동기, 거제 여행계획, SNS 홍보계획을 담은 신청서를 거제시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거제(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

'2026 작당페스타' 16일 개최

부산지역 청년 커뮤니티와 청년 창작자들을 위한 축제인 '2026 작당페스타'가 오는 16, 17일 양일간 부산 대표 청년문화공간인 중구 신창동 청년작당소에서 열린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축제는 '청년들의 문화 우주, 낯선 신호를 따라'라는 주제로 청년들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는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BNK 아트시네마의 3개 층을 모두 활용해 1층 야외 공간에서는 청년 창작자들의 '작당마켓'과 뮤지션 공연인 '은하수 스테이지', 토크 프로그램 '도킹스테이션'이 진행된다. /부산=이도식 기자